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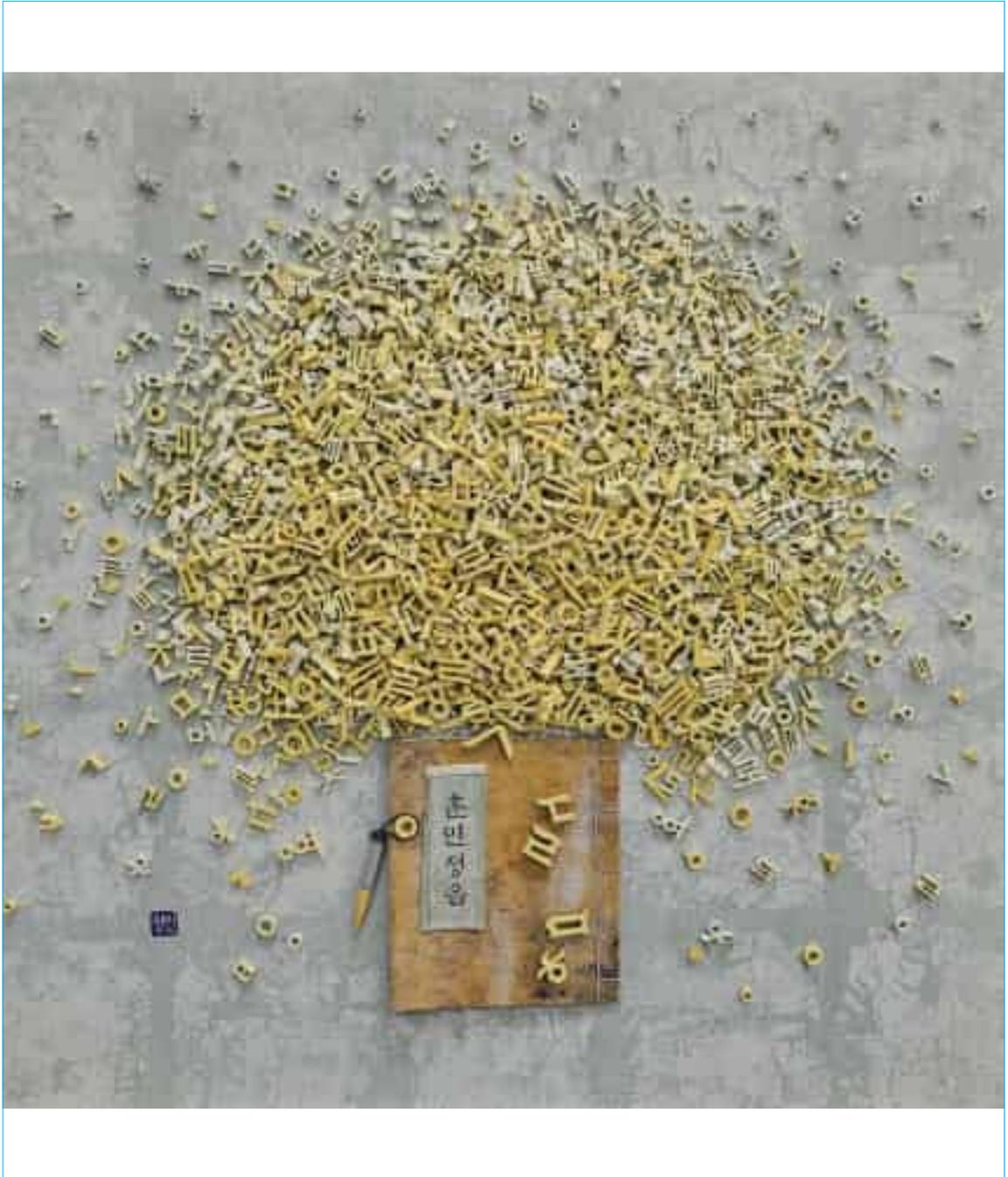
# 한글 새소식

ISSN 1225-0538

# 638

2025. 10.

한글 새소식, 달마다 5일 펴냄 | 제638호(2025. 10. 5.) | 1986년 6월 12일에 제3종 우편물 (나)급 인가 받음 | 펴낸 데: 한글학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 선물(작가: 김정민).

우리의 주장 1. 바르고 쉽고 고운 말을 가려 쓰자.  
2. 일상의 글자살이는 한글로만 하자.  
3. 한국말과 한글을 온 누리에 펼치자.

※ 한글 새소식에 실린 글의 내용은 우리 학회의 뜻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주시경 선생 탄생 150돌 기림 (10)	한국어와 한글의 새로운 길을 닦은 주시경 선생   리의도	2
우리 말글을 빛낸 인물	한글을 사랑한 나의 조부, 상산 김도연 박사   김인희	4
한글과 우리	한글서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의 당위성과 아쉬움   신현애	7
우리말과 우리	우리 인사말 ‘안녕’의 의미   조영연 그늘이 진다, 더위가 덜하다   김들물	9 11
한국어교육 이야기	프랑스와 한국어, 경계에 다리를 놓다   서희경 세계인을 위한 한글   황현주	13 15
시	하현달   최오남	17
눈길에 머무는 곳	우리말로 환경 지키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18
알림	제12기 우리말·우리글의 힘, 시민 강좌	19
우리 학회 소식	한글학회 창립 117돌 기념 잔치	20
이웃 소식	헐버트 박사 76주기 추모대회	21
구독 설문	『한글 새소식』을 어떻게 받아보시겠습니까?	23
우리말 알아맞히기	‘날샷’과 ‘날고기’, 그리고 ‘날짐승’	24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자: [saesosik@hangeul.or.kr](mailto:saesosik@hangeul.or.kr)

한글 새소식, 1972년 8월 8일에 월간으로 등록(등록번호: 종로 라00082) 펴낸이: 김주원 역은이: 김한빛나리 박은 데: 형설출판사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 738-2236-7 전송: 02) 738-2238 누리편자: [webmaster@hangeul.or.kr](mailto:webmaster@hangeul.or.kr)

- 한글 새소식은 회비를 내신 일반회원(한말글문화협회 회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한글 새소식 일반회원이 되시려면, 회비(1년차 10,000원)를 국민은행 009-01-0428-355(예금주: 한글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한글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입회 신청서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전송 또는 누리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 한국어와 한글의 새로운 길을 닦은 주시경 선생



리의도

춘천교대 명예교수  
daegok@cnue.ac.kr

주시경 선생은 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군 무릉골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지 10년 6달쯤 지난 1888년 늦봄 서울로 옮겨왔다. 그 후로 각종 학교에 입학하여, 또는 각계 사람과 어울리며 여러 신학문과 영어 일어 한어(청어) 등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였다. 30살 전후부터는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 각종 강습회에 나가 교육 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14년 7월 27일 아침 7시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37년 7달의 짧은 일생이었다. 하지만 그 업적은 높고 높으며, 한겨레 공동체에 끼친 영향은 넓디넓다.

무엇보다도 주시경 선생은 위대한 언어학자이다. 한국어학을 개척한 선구적인 학자이며, 우리 말을 독창적으로 분석한, 탁월한 언어학자이다. 그가 언어학자로서 이룬 성과는 1908년의 『국어문전 음학』, 1910년의 『국어문법』, 1914년의 『말의 소리』 등에 알알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본음(本音)’, 기나갈(형태론)에서의 ‘늦씨’, 짬듬갈(통어론)에서의 ‘속뜻’은 현대 언어학의 ‘기저형’, ‘형태소’, ‘심층구조’에 해당하는 것이니 역사적으로 매우 앞선 결실이며, 우리 말의 월(文) 짜임새를 그림으로 풀이한 것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은 평범한 언어학자가 아니었

다. 1906년 6월 ‘청년학원’ 학생들에게 나눠 준 강의 교재(등사본)의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당신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연구하고 바루는 일에 힘쓰는 취지를 밝힌 대목이다.

“(나는) ~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한반도 우리 인민에게 여러 학문을 다 잘 가르쳐 문명과 부강(富強)이 우리 사회에 충만하여 외세가 침범할 곳이 없게 하고, 또 우리 황제의 덕화(德化)와 나라의 위권(威權)이 세계에 넘치게까지 하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반듯하게 해야만, 우리 겨레(한반도 인민)에게 여러 지식을 잘 가르쳐 우리 공동체(사회)가 문명하고 부강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그리하여 외세가 우리 겨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나라의 위세와 권위가 세계에 넘치게기를 발원하였다.

선생이 살던 그 시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격변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운은 점점 쇠잔해지고 있었다. 청년 주시경은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고 통찰하면서, 우리 겨레를 다시 일으킬 방법과 길을 우리 말과 우리 글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경술국치를 당하기 2달 전, 1910년 6월 발표된 글 「한나라말」에서도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

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진다. 그러니 나라를 나아가게 하고자 하면, 나라 사람을 열어야 하고, 나라 사람을 열고자 하면 먼저 그 말과 글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신념으로 우리 말의 법칙을 찾아 정리했으니, 앞에 올린 『국어문전 음학』·『국어문법』·『말의 소리』는 그 결과물의 일부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말의 나아가갈 길을 몸소 시범하였다. 예컨대, 처음에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자말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모음(母音)→으뜸소리→홀소리”, “자음(子音)→붙음소리→닿소리(닿소리)”, “합음(合音)→겹소리”와 같은 식으로 토박이말로 바꾸어 썼으며, ‘명호(名號)’, ‘형용(形容)’, ‘주자(主者)’, ‘물자(物者)’ 등의 용어를 만들어 쓰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각각 ‘임’, ‘엇’, ‘임이’, ‘씀이’로 바꾸었다. 『국어문법』의 경우, 초고에서는 “母音은 다 疊습하고 混습하는 者가 無하여 同音이 相습하면 곳 一音이 된다.”고 기술했으나, 책을 낼 때에는 아주 바꾸어 “으뜸소리(홀소리)는 다 덧겹치고 섞여겹치는 것이 없어, 같은 소리가 서로 겹치면 곧 한소리가 된다.”로 고쳤다.

그리고 선생은, 온 겨레에게 지식과 정보를 잘 실어 담을, 합리적인 한글 표기법을 내놓았다. 『국어문전 음학(音學)』에서 “국문은 국어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 국문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국어의 소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듯이, 그 표기법은 우리 말의 소리와 발음 원리를 두루 통찰하여 얻어 낸 것이었다. 예컨대, 당시에는 같은 말을 “맞으니, 맞트니, 마트니, 말흐니, 말흐니, 말으니” 등으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말으니’가 합당한 표기이며, 또 “[감시/감또/감만] 비싸다”의 예에서 보듯이 [값/갑/깎]으로 달리 발음되더라도 그들은 한 낱말(기저형)의 발음이니 ‘값’ 하나로 고정하여 “값이, 값도, 값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말을 제대로 가꾸는 길이라고 설득하였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사람에게 그것은 혁명적인 방식이었다. 그런 만큼, 선생은 그 표기법의 내용을 알리고 가르치는 데에도 끊임없이 맹렬한 노력을 쏟아야 했다. 그와 같은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기저형(본음)을 밝혀 표기하는, 통일된 맞춤법이 점차로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물론 선생은 글자 생활의 보편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 말을 한문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문자 생활의 불편과 문제점을 일찍 깨달았으며, 예컨대 1897년 4월 발표된 글 「국문론」에서는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은 우리끼리 알아보기 쉽고 배우기 쉬운 조선 글(한글)로 모든 일을 기록하여, 남녀·노소·빈부의 차별 없이 누구나 글자 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한문 익히기에만 골몰했던 우리 겨레의 지난날을 비판하고, 실용에 유익한 여러 학문도 익히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

또한, 선생은 우리말 사전 편찬에서도 선구의 길을 닦았다. 1897년 9월의 「국문론」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지면과 기회를 통하여 사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국문이 쇠잔해진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국어연구학회’와 ‘조선언문회’ 시기에 이르러 회원·동지들과 더불어 여러 낱말을 모으고 정리하였으며, 마침내 1911년, 그때까지 정립한 우리말 문법과 표기법을 바탕으로 직계 제자 3인과 함께 「말모이」라는 이름의, 우리말 사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선생이 갑작스럽게 이성을 떠났다. 일본에 국권을 아주 빼앗기고 4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선

〈6쪽으로 이어집니다.〉

## 한글을 사랑한 나의 조부, 상산 김도연 박사



김인희

상산 김도연 선열 말손녀

필자의 조부인 상산(常山) 김도연(金度演) 박사는 대한민국의 초대 재무부 장관과 제헌 국회의원 당선을 포함, 6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정치인이셨다. 무엇보다, 조부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1919년 2·8 독립선언을 선포한 11명의 대표 중 한 분이셨으며, 민족의식을 양양하여 독립을 위한 실력을 양성하는 데 뜻을 품고 조선어학회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1967년 조부가 작고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필자는 조부가 보여 주셨던 민족과 우리 글에 대한 사랑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는 조부의 애국심을 당연한 듯이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 일제 치하를 겪어 낸 조부의 생애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시며 치열하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존경심과 함께 그리움에 잠기곤 한다.

구한말 격변기인 1894년 6월, 경기 김포에서 출생하신 조부는 열강들의 다툼으로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위태롭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보성중학에 재학 중이던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는 망국을 경험하셨다. 전에 없던 국가의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조부는 은사인 손병희, 주시경 선생들로부터 강한 자주독립의 정신과 투철한 민족주

의 사상을 배우셨는데, 이때부터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

조부는 1913년 일본 유학을 출발점으로 20여 년의 해외 유학 기간 동안 면학에 힘쓰시면서, 광복을 위한 험난한 항일 운동에 몸바치셨다. 특히, 일본 게이오대학 재학 중 송계백 등 10여 명과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여 1919년 2월 8일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혈전을 선포하고 꺾기하셨다. 바로, 2·8 독립선언이다. 당시, 조부가 독립선언 결의문을 낭독하고 나서 출동한 일본 경찰은 해산을 요구하며 유학생들과 격전을 벌였지만, 대다수 유학생들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조부 역시 이때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동경형무소에 2년간 수감되어야 했다. 출감한 후 1922년에는 도미하여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으셨는데, 미국에서도 『삼일신보』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다.

귀국 후부터는 후학 양성과 함께 본격적인 민족 자본 재건 사업에 집중하셨다. 유학에서 돌아오시고 1932년 연희전문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셨지만 일제의 간섭으로 학교에 다니실 수 없게 되자, 1934년 조선흥업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일제 수탈에서 벗

어나기 위한 민족 자금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독립운동단체였던 흥업구락부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셨다.

그러던 중, 1940년 5월 조선총독부는 조부에 창씨개명을 강요하게 된다. 하지만, 조부는 거절하고 응하지 않으셨으며, 이때부터 총독부의 감시 대상인 불령선인 2호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일제는 이 시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경찰·행정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민족말살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목적으로 반일 인사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일제는 1942년 10월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던 조선어학회 회원을 검거하면서, 눈엣가시였던 조부를 관련자로 구속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상황과 조부의 경험은, 회고록인 「나의 인생백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 2월 10일 조선어학회로 개명하였으나, 재정적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던 중 정세권 씨가 화동의 집 한 채를 기증하여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극로 씨가 분주히 움직여 운영자금을 충당하였다.

언어와 문자를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사전 한 권도 가지지 못한 것을 애통히 느끼고 1929년 9월 30일 수표동 42번지 조선교육회관에서 한글날 기념식을 마치고 사회 각 방면의 인사 108명이 발기하여 '조선어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여 "인류의 행복은 문화의 향상을 ... (중략)... 강호의 동지들은 민족적 백년대계에 협조함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는 요지의 취지문을 공포하고 이우식 씨가 다수의 인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받아 인원을 정리하고 한편 단어장을 모아 설명을 부치는 등 본격적인 편집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는 우리 말과 글을 말살하려던

일제에 항거해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집하여 널리 보급을 시도하던 중 일제의 검거를 당하게 된다.

나는 1942년 10월 29일 밤에 민족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말, 우리 글을 보급하기 위한 문화운동을 하던 조선어학회에 운영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무시무시한 경찰의 고문과 검사의 취조, 교활한 예심판사의 심문을 거쳐 무려 20개월을 두고 미결로 방치되었다가 1944년 여름 제1심에서 담당판사로부터 2년 징역에 3년간 집행유예의 연도를 받았는 바 담당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병보석으로 출옥하였다.

거주 제한을 받아 김양수 씨와 같이 3개월 동안 흥원에서 머물러 있다가 2심 판결이 있는 후 해제되었고 7개월 후에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나는 몸서리 나는 악형과 오랜 감옥생활로 지금도 육체적 고통을 받는 때가 없지 않다.

조부가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수감 후, 받았던 탄압과 고문은 잔인하기 그지없던 것이었다. 비행기 태우기, 물 먹이기, 여러 사람이 목총을 들고 돌아가며 후러치기 등 죽지 않을 정도의 폭행을 하는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조선어학회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을 자살로 속죄하라는 말도 안 되는 권유, 고문과 함께 요구대로 자백을 강요하는 정신적인 것까지 이르렀다. 일화로, 경찰 취조 당시 조부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인 형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조부는 '가네상'이라고 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응수했다고 한다. 이에, 형사는 불같이 화를 내며, "너는 2·8 독립선언의 주모자가 아니냐?"라며 각목으로 마구 내리치는 등 자백을 강요했다고 한다. 조부의 활동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예의주시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고

초를 겪으며 병마에 시달리던 조부는 다행히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정계에 진출하여 국정에 참여하시게 된다.

이렇듯, 조부는 전 생애에 걸쳐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조부의 우리 말, 우리 글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이러한 민족과 조국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침 필자가 조부와 함께 지냈던 일상적인 기억 중, 한글에 대한 조부의 남다른 애정을 경험한 적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964년 장마 때였는데, 한꺼번에 내린 비로 자택의 지붕이 새어 사랑방 마루에 있던 서고로 빗물이 들이친 적이 있었다. 상당히 많은 책이 물에 젖었지만 조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1948, 1950년 고려서적주식회사에서 출판한 『표준 한글 사전』, 1957년 미국 록펠러 재단 원조로 한글학회에서 제작한 한글학회 『큰 사전』이 젖게 된 걸 무척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리고는 손수 책들을 펼치시며, 정성껏 책을 말리기 시작하셨다. 이를 보고 필자를 포함한 손주들이 다 같이 조부를 도와 더운 여름 내내 마당에다 책들을 펼쳐놓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 가며 말리던 기억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돌이켜 보면, 일제 치하에서 오염된 소중한 나라말에 대한 정화 작업의 상징이었을 한글 사전이었기에, 조부의 뜻깊은 정성을 떠올릴 때마다, 나라 잃은 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생각이 미쳐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곤 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부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직접 손주들에게 한글을 지도하셨다. 일곱 손주들 모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ㄱ, ㄴ’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해 주신 것이다. 특히, 맏손녀였던 필자에게는 『동아일보』 연재 소설이었던 『삼국지』를 매일 읽게 하셔서 읽기와 글

쓰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이따금 곁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많이 예뻐해 주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정 업무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도, 손주들에게 일일이 관심을 주시며 한글을 알게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말에 대한 조부의 애정과 손주들에 대한 내리사랑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곤 한다.

조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지금, 조부가 평생 보여주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손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당당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필자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줄 것이다. 

### 〈3쪽에서 이어집니다.〉

생의 정신과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르고 백두대간처럼 뻗었으니, 왜정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노력은 끊어지지 않았다. 특히 조선어학회의 중추 회원들—장지영, 김두봉, 신명균, 권덕규, 이규영, 이병기, 김윤경, 최현배, 정렬모, 이상춘, 그리고 이운재, 한징, 리극로, 정인승, 정태진, 김선기, 이석린, 이희승, 이종건, 이우식의 정성과 노력이 컸다.

그 후학들과 후원자의 땀방울이 밑거름이 되어, 일찍이 선생이 기대하고 발원했던 대로 우리 겨레는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 일본이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랬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 한글서예 무형문화유산 지정의 당위성과 아쉬움



신현애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외래교수  
proashin@naver.com

올해, 1월 23일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글서예 작품 활동과 한글서예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자연의 운행 원리에 관한 철학을 담아 만든 가장 한국적인 고유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한글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서예 또한 이와 더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국의 전통예술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의 위상에 합당한 한글서예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학문적 근거에 바탕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 이후 한글은 주로 실생활에서 소통의 수단으로 서적이나 편지, 문서에 쓰여오다가 정식으로 예술 활동의 대상이 된 것은 1912년 조선서화미술회가 창립되고 정규학교 서예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22년 시작된 조선미술전람회와 1949년에 시작하여 1981년까지 이어 온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비롯하여 현재 수많은 미술 및 서예공모전과 휘호대회에서 한글서예는 빠질 수 없는 부문으로 대중화되었다.

한글서예가 예술로 인정받은 지 겨우 100여 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지만, 조선시대 500여 년간 실용 단계에서 쓰인 서체를 발굴하고 한글서예로 승화시키

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글의 다양한 서체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창작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글서예에 담겨 있는 한국적 미와 얼에서 찾으려는 심미 활동으로 한글서예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글서예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세계가 한국의 고유한 예술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서예에 관한 정확한 명칭과 의미를 바르게 알고 써야 할 것이다.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공고하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 중 판본체, 궁체 그리고 민체에 관한 명칭과 개념 정의는 그러한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에 ‘**판본체는 조선시대 중·후기까지 주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판각본에 사용한 서체**’라고 명시한 것은 어떤 형태의 서체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서체의 명칭은 서체의 형태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판각본에 사용된 서체여서 ‘판본체’라고 한 명칭은 사용 용도를 말한 것이지 글자의 형태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 후기까지 아주 다양한 서체가 판각본 서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서체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한글 서체 명칭 통일을 위해, 2004년 성균관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의 세미나에서부터 2015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서예진흥정책 포럼까지 10여 년이 넘게 많은 학자, 서예가들이 참여하여 잘못된 한글 서체 명칭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멈춘 상태이다. 특히 ‘판본체’라는 명칭의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

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서예인이 여전히 ‘판본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70여 년이 넘게 초·중등학교에서 이 명칭이 실린 교과서를 사용하며 한글서예를 가르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는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들이 말하는 판본체는 훈민정음 반포 초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범례로 제작한 대략 8종의 서적에 쓰인 서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일찍이 해방 이후 근현대 서예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김충현, 김응현 등 일부 서예가가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서체 형태를 본받아 서예로 승화시킨 서체이다. 김응현은 김충현의 1961년 제10회 국전 작품인 한글 고려가사 「사모곡」에 대해서 “훈민정음 반포 당시 글자의 모양과 형태를 고전(古篆)에 따랐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고체를 ‘훈민정음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한글서예 작품의 협서에 ‘훈민정음체’로 썼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연구와 실험정신으로 세종대왕이 최초로 제시한 한글의 글꼴, 훈민정음의 서체로 서법이 정립되어 서예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판본체 대신 ‘훈민정음체’라고 명해야 마땅하다.

현재 ‘훈민정음체’와 더불어 서법이 정립되어 있고 대중성을 갖춘 서체는 ‘궁체’이다. ‘궁체’라는 어휘가 1750년에 이옥이라는 문인이 쓴 시에 이미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명칭의 역사적 고유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에 ‘궁체는 궁중에서 서사 상공들이 붓으로 서사할 때 사용한 서체’라고 한 것은 궁체를 설명하는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1920년에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 일본어로 발간된 『조선어사전』에 실린 ‘여관(女官)들이 학습하던 글씨(宮體(궁체): 女官의學習する諺文の字體)’를 따른 것으로 오히려 한글서예의 위상을 낮추는 표현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7차례의 수렴청정 시기에 왕비와 승정원 사이에 한글로 된 많은 공문서로 소통이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 상공들이 주로 대필하는 과정에서 궁체의 정착에 공헌했지만, 왕비와 공주들이 직접 쓴 편지나 소설에도 전형적인 궁체의 모습이 있다. 효의 왕후가 쓴 소설 『만석군녀』·『곽주의녀』과 효종, 현종, 숙종, 그들의 왕비인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가 효종의 넷째딸 숙휘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 모음집, 『신한첩 곤』은 모두 궁체로 쓰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유산청에서 이것들을 보물로 지정한 바가 있다. 이외에도 궁궐의 왕실 구성원들이 궁체로 쓴 많은 유물이 있는데도 궁체를 단지 상공들이 쓰던 글씨라고만 한다면 그 범위를 축소해서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한글서예의 위상을 폄훼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궁체는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쓰던 글씨체’라고 해야 한다.

보도자료에 ‘민체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판본체·궁체와 구분되는 민간 서체’라고도 하였다. 이 ‘민체’라는 용어도 한글서예의 정식 서체 명칭이 될 수 없다. 쓰는 사람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써서 일정한 서법과 글씨의 형태가 없고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자서예에는 전·예·해·행·초 5체가 있다. 하지만 『패문재서화보』에 한자 서체가 모두 360여 종으로 구분·수록된 것을 볼 때, 한자서예도 나름 서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시간이 길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 잘못된 명칭과 개념 정의를 일반 국민에게 공고한 것은 이제 서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합당한 한글서예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 우리 인사말 ‘안녕’의 의미



조영연

한밭땅이름연구회  
joyyeong@daum.net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는 맨 처음 가족을 시작으로 이웃, 지역, 나라 나아가서는 세계(국제)로 확장된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까지도 만나야 한다.

그런 모든 만남에는 그에 걸맞은 분위기 조성, 질서와 예의가 필요한바, 그 첫 번째 과정은 인사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은 처음에는 몸짓과 발짓 등 행동으로 표현됐었지만 점차 인지가 발달하면서 언어가 소통 도구의 하나로 사용됐고 그 중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이 인사말이다.

말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서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의 하나다.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친교를 촉진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그 친교의 시작은 첫인사에서 출발하고, 그 시작을 여는 말을 우리는 인사말이라 한다.

인간 활동에서 모든 일들은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시작이 좋으면 반은 성공한 셈이니 시작에서 어떤 인사말을 사용하느냐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인사와 인사말을 이렇게 규정한다.

인사: 안부를 묻거나 공경하여 예를 포함

인사말: 인사로 하는 말

—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인사말의 주된 기능은 사실성보다는 사람들 간에 친교를 유지함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인사말에서는 엄격히 사전적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정서적 분위기가 더 중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사회에서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안녕’ 했다 해서 약올리느냐고 화를 내지 않고, 뉴욕에서 날씨가 흐리거나 기분이 언짢은 이들에게 ‘굿모닝’이라 했다고 해서 다투려고 대들지 않는다. 그것은 인사로 사용되는 ‘굿모닝’이라는 말이 엄격한 의미성보다 정서성이 위주가 됨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말들은 하루아침에 어떤 개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여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전승돼 내려온다. 그러기에 그 속에는 부지불식간에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사상과 생활 등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진다. 따라서 한 나라와 민족의 인사말에는 그 민족의 특성이 반영된다. 그것들은 대개 긍정적이거나 기원하는 내용들이 함축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은 ‘안녕(혹은 안녕하세요)’이다. 원래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는 윗사람들, 점잖게 대해야 할 사람들에게만 엄격히 사용됐던 말이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존대법의 개념이 변한 요즈음에는 상하간에도 존대법의 어미 없이 ‘안녕’이라고 스스럼없이 통용되곤 한다. 친근한 경우 손자가 할머니에게, 제자가 스승에게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두루 사용되지만 이의를 달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니하오’나 영어 ‘헬로우’처럼 상하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처럼 더 높이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에

서만 사용되던 규칙의 엄격성에서 벗어나 간편화된 형태로, 나아가 그 사용범위까지 확대돼 존대법의 어미가 생략된 채 ‘안녕’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자말에 뿌리를 둔 안녕(安寧)을 각각 “걱정이나 탈이 없음, 탈 없이 무사함”으로 풀이한다.

—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대한한사전』(박문출판사).

의미상 “안=위(危-위태함, 재앙)의 반대, 념=편안함”인(장삼식, 『大漢韓辭典』) 두 한자말의 합성어 안녕을, 굳이 의미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됨, 즐거움 등이 포함된 ‘편안함’에 해당할 것이나 그것이 일상에서 인사말로 사용될 경우는 그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고 친밀감을 조성하려는 정서적 의미 속에 함축시켜 표현한다. 이 함축된 의미는 상대방의 머리보다는 주로 가슴에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쌍방간에 정서적으로 친근함을 조성하고, 나아가 양쪽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소통에 기여한다.

이 보편화된 한국인의 인사말 ‘안녕’의 근본 형태는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였다. 그 쓰임도 반드시 손윗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높여야 할 사람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최소한 봉건사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1950년대 무렵까지의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손윗사람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아침에는 ‘안녕히 주무셨어요(-습니까), 편안히 주무셨어요’, 식후에는 ‘진지 잡수셨어요(-습니까)’ 했다. 아랫사람에게는 ‘잘 잤니’ 혹은 ‘밥 먹었니’ 정도였다. 상대방이 전날 밤에 자지 못했건 밥을 굶었건 그 사실 여부와는 무관했다.

그러나 식(食)과 주(住) 생활이 시급하고 불안했던 당시로서 우리 민족에게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었고, 민족적 소망이었다. 그런 점이 무언중 인사말에 함축 반영된 것이라

고 보여진다.

이렇게 인사에서조차 잠과 식사가 반영된 것은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대륙의 한끝에 대륙대륙 매달린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대륙과 해양족들로부터 부단히 괴롭힘을 받았다. 안으로는 수많은 정쟁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생활은 늘 팍팍하고 불안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오랫동안 유교적 봉건주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수직적 관계가 엄격했었다.

그러다가 대내적으로는 1960, 70년대부터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대외적으로는 80년대 이후 국제화로 외국과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생활방식과 의식이 크게 변화됐다. 사상 면에서도 전통적 봉건주의를 탈피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개인화, 수평화 사회로, 생활과 사고방식도 바뀌었다. 먹을 것, 자는 일 등의 생활이나 유교사회적 엄격한 규율도 약화됐다. 그런 것들이 인사말에도 은연중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근한 구어체의 ‘안녕하세요’가 보편화됐고 더 나아가 ‘안녕’으로만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게 정착됐다.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인사말의 친교적 기능이 더 중시되고, 내용 면에서도 가볍게, 형식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게끔 간소화된 것이다.

인사말은 그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존대법이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전혀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사말은 자연스레 알맞게 사용하고 익숙해질 것이다. 

## 그늘이 진다, 더위가 덜하다

### — 여름날, 어른신의 말 한마디에서 피어난 말꽃



김들풀

아이티뉴스 편집장, 한국어인공지능학회 부회장  
itnews@itnews.or.kr

얼마 전 나는 고창에 다녀왔다. 장마가 막 끝난 뒤 라 하늘은 더없이 맑고 깊었고,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들판은 비를 머금어 초록빛이 더욱 짙게 빛났고, 그 속에서 매미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햇볕은 여전히 따가웠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흘렀지만, 마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무 아래나 담장 곁, 지붕 처마 밑에 드리운 그늘이 군데군데 이어져 있어서, 나는 그늘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곤 했다.

마을회관 앞 평상에는 어른들이 모여 앉아 계셨다. 손에 부채를 들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여름날의 풍경이었고, 나에게서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때 박○○ 할머니가 나를 보며 손짓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거기 앉어. 여긴 그늘이 저서 덜 덥다.”

그 순간 나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다. 그냥 앉으라는 권유 같았지만, 그 말은 뜻밖에도 내 마음을 크게 울렸다. 사실 햇볕 아래나 그늘 아래나 더운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덜 덥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함께 쉬자는 마음, 내 몸을 먼저 생각해 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늘이란 단순히 햇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

이자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그때 느꼈다.

“그늘이 저서 덜 덥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으로 배운 삶의 지혜가 들어 있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흘려보내는 말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

내가 평소에 접하는 말은 대체로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건조한 숫자와 표, 그리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장들. “폭염특보 발령, 체감온도 35도, 열돔 현상...” 이런 말들은 정확하긴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여름의 무게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할머니가 건네신 그 말은 달랐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말, 내 마음을 붙잡는 말이었다. 그들은 분명 자연의 현상이지만, “그늘이 저서 덜 덥다.”라는 표현은 서로를 살피고 챙기는 관계의 언어였다. 그 말속에는 “그래도 살 만하다.”라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언어란 원래 그런 힘을 가진 것인지도 모른다. 날씨를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달래고 온도를 낮추어 주는 힘. 우리는 “기상청 발표에 따

“

그들은 분명 자연의 현상이지만, “그들이 저서 덜 덥다.”  
 라는 표현은 서로를 살피고 챙기는 관계의 언어였다.  
 그 말속에는 “그래도 살 만하다.”라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 여름, 당신 곁에도 그런 말꽃 하나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

르면...”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나무 그들이 잘 드는 날이네.”라는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를 준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온도가 바로 그곳에 있다.

요즘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공지능은 수많은 말을 배워서 ‘덥다’와 ‘그늘’을 잘 엮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저서 덜 덥다.”라는 말이 주는 여유와 따뜻함, 함께 견디는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을까. 말은 단순히 글자와 문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말이 오가는 순간의 공기, 듣는 이의 마음자리까지 다 담겨야 완성된다. 그날 할머니의 말 씬은,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말의 온기와 결을 다시 깨닫게 했다.

특히 내 마음에 오래 남은 것은 ‘덜’이라는 표현이었다. ‘덜’이라는 말은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 중간 어디쯤, 조금 나아진 상태, 버티는 대신 견디게 해주는 틈을 열어 준다. 숫자로 잴 수 없는 마음의 기후 변화, 그 숨구멍 같은 공간이 바로 ‘덜’에 숨어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말이나 옛말이 아니라, 이렇게 배려와 여유가 스며든 말들일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너무 덥다, 진짜 죽겠다.” 그것은 곧바로 감정을 터뜨리는 말이다. 반면 할머니의 말은 다르다. 평생 여름을 건너온 세월 속에서 몸으로 익힌 더위 다스리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여름을 살아내는 기술이자, 긴 세월을 통해 다듬어진 말의 무늬였다.

뉴스는 언제나 가장 빠른 것, 가장 정확한 것을 다룬다. 하지만 진짜 소식은 어쩌면 오래된 말, 기록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한마디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때로는 그런 말이 뉴스보다 더 크게,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날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내겐 그 어떤 속보보다도 깊고 소중한 것이다.

이 여름, 당신 곁에도 그런 말꽃 하나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말이 그들이 되어 마음을 조금은 덜 덥게 해주는 순간, 우리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붙드는 힘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그러니 우리도 가끔은, 그늘처럼 시원한 말을 서로에게 건네야 하지 않을까. 

## 프랑스와 한국어, 경계에 다리를 놓다



서희경

한국어교육 전문가, 문화언어 연구자  
soopiashk@naver.com

나는 프랑스를 '제2의 고향'이라 부른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웠고, 첫 해외 여행지도 프랑스였다. 또 가장 친한 외국 친구도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프랑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 생활할 때도 운이 좋아 따뜻하고 좋은 이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다.

한 달 전, 나는 프랑스에서 1년 7개월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프랑스가 있었다. 제2외국어로 익숙했던 프랑스어 덕분에 대학은 유럽어 문학부에 진학해서 불문학을 전공했고, 프랑스와의 인연은 친구, 사람, 일이 필연과 우연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대학 시절, 언어와 문화가 사람의 사고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깨달았으며 미래를 알 수 없었던 나의 시간은 프랑스와의 인연 속에 녹아들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내키지 않는 수학 경시부에 억지로 다녀야 했다. 담당 선생님의 강압과 체벌에 묶여 자유를 잃은 기분이었다. 매일 문제집을 풀고 시험을 준비하는 일은 어린 나에게는 답답한 굴레였고, 그 시절의 배움은 호기심이 아닌 의무감이었다.

그 후, 나를 숨 쉬게 한 건 언제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었다. 중학교 때 처음 장구를 잡으며 '내가 선택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다. 고등학생 때는 풍물패 상쇠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한 호흡으로 가락을 만드는 힘을 경험했다. 사물놀이의 리듬은 내 심장박동과 맞닿아 이후 내 삶의 박자감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불어불문학과 고고·문화인류학을 복수 전공하며 언어의 구조와 문화의 맥락을 학습했다. 프랑스어를 익히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그 언어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동시에 상대 문화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일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한국어교육의 길로 들어선 것도 이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뮤지컬과 문화에 감명받아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고 프랑스어와 문화는 내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우리의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프랑스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 4학년 때 한국어 교원양성 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경기대에서 처음 한국어를 강의하기 시작했고, 서울대·서경대·

한양대·가천대·수원대·부천대·수원과학대·용인 예술과학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국방어학원에서는 26개국 외국군 장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삼성전자 등 기업체, 다문화센터, 사이버 교육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예비 한국어교원,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어와 문화, 한국어교육을 전하며 만 시간 이상의 교육 실무 경험을 쌓았다.

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동했는데 몽골에서 한국어학과 전임 교수와 통·번역센터 책임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현지 사회와 한국을 잇는 교역 역할을 했다. 또 세종학당재단 국외 파견교원으로 한국어교육이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는 힘임을 실감했다. 몽골의 경험은 국방어학원에서 몽골 장교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대학 교육 연구원으로서 실무 경험도 넓히면서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전문성을 키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초심을 돌아보며 내가 처음 꿈꾸던 일을 다시 생각했다. 나는 지난 18년간, 한국어교원으로서 거의 모든 교육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더 나아가갈 방향은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프랑스에서 그 첫 마음과 마지막 다짐을 완성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에서 1년 7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들과 만났다.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한국 기업이나 지인과 협력하는 직장인, 케이팝과 케이(K)-드라마를 사랑하는 청소년과 주부, 한국인 가족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입양아 가족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수업에서는 문법과 어휘뿐 아니라 한국어에 담긴 문화적 맥락도 전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로 ‘내 나라’, ‘내 가족’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 가족’이라 표현하듯이 ‘우리’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포함과 연대의 정서를 담고 있는 어휘이며, 높임말은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관계와 존중의 방식임을 설명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한국어를 ‘외국어’가 아닌 ‘관계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언어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 나아가 자아와 세계관을 나누는 일임을 확신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결국 ‘사람’인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지만 그것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할 때이다.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과학과 미학을 전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대화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지금 나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 국경과 언어의 경계를 오가던 그 설렘을 마음 한편에 품고 앞으로도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경험과 그 전달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계로 건너는 발판이 되고, 그 발걸음이 또 다른 만남과 이해로 이어지길 바란다.

언어와 문화는 나에게 직업이자 삶의 방식이며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이다. 그리고 나는 그 다리를 놓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세계인을 위한 한글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 교장  
sjhk1002@gmail.com

내가 가르치는 미국 공립학교 5학년 학생 브랜든이 어느 날 나에게 부탁을 해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학교에 다니게 어머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가 사는 지역에는 한국학교가 없다. 브랜든은 스스로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익혀 공책 가득 또박또박 한글로 쓴 한국어 단어를 보여주기도 하고, 매일 한 문장씩 적어 와서 내게 읽어주며, 맞는지 확인받으며 한국어를 익혀갔다.

비슷한 기억이 또 있다. 몇 년 전, 한 대학생으로부터 한국학교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학생은 내가 근무하는 미국 공립학교 동료 교사의 딸이었는데, 스스로 ‘박하늘’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그 학생은 한국학교에 나와 몇 번 봉사했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 탓에 결국 중도에 그만 두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군가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그 학생이었다. 그녀는 독학하며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대화를 연습해 왔다고 했다. 이후 우리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랜든’, 그리고 ‘박하늘’처럼, 미국에서 한국어

를 배우는 사람들은 나이나 배경을 가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동기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바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케이(K)-문화의 열풍은 거세다. 이러한 케이(K) 열풍은 한인 2세, 3세대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1970~80년대에 이민 온 1세대 가운데는 자녀들이 빨리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라며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당시 자녀였던 2세대들은 성인인 지금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들이 지금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려고 한국학교에 보내는 일에 열성이다.

나 역시 미국에 이민 온 1.5세대다. 지난 28년간 주중에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이면 한국학교 교사로 살아왔다. 내가 처음 이민 왔던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한글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글에 대한 갈증은 자연스럽게 한글 신문으로 이어졌다. 책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유일하게 우편으로 받아보던 한국 신문 속 말투와 어휘, 문장의 흐름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붙잡으려 애썼다.

나는 43년 된 ‘뉴저지한국학교’의 교장이다. 뉴저지한국학교는 600명이 넘는 재학생을 40여 명의 교

사가 가르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조용한 주택가에 학생들을 태운 자동차 행렬로 가득 차 북적인다. 매 주말 이 광경에서 한국인의 힘을 느낀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저력과 한민족의 활력이다.

케이(K)-문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핵심은 한글이다. 나는 한국어교육을 한국 문화로 이어갈 방법을 궁리했다. 아이들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아름다운 우리 노래를 가르치고자 2015년에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다. 이 합창단은 백악관의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리랑’을 불렀고, 유엔에서는 각국 대사들 앞에서 한국 가곡을 불렀으며,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공연했다. 한국어교육으로 한국학교를, 그리고 한국학교가 한국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영어에서는 ‘my mom’, ‘my family’라고 하지만, 왜 한국어에서는 ‘내 엄마’나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며 쉽게 답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 전통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을 때, 합창단에서 목소리를 맞추어 노래할 때,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 속에서 함께 어울릴 때, 아이들은 서서히 ‘우리’라는 말 속에 담긴 속뜻을 알아차리게 된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정신이다. 한국학교를 통해서 한국어에 배어있는 공동체의 정신을 깨닫

게 된다. 그래서 한국학교에서는 매주 아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한국 문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 나는 한국의 힘을 느낀다. 우리가 굳이 “알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세계는 이미 한국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크다. 케이-팝 공연장에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목소리,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식당의 풍경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한글이 있다.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우수성은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있다. 한글의 창제는 지식과 사상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고, 우리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문화를 세대와 공간을 넘어 생생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세계인들이 배우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마음을 함께 전하는 강력한 다리다. 한국어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이젠 세계인들의 언어이다. 세계인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더 바르고 더 매력적으로 가르칠 고민을 한다. 한국어교육의 열정이 올바른 교육 방법과 만나, 다음 세대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바르게 전하기를 소망한다. 

## 하현달



최오남  
한글학회 특별회원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참이라 믿었는데,  
음력 유월 스무날  
신새벽.

바지런한 '나비'들과 개들 등쌀에  
마당으로 나섰다.  
여태도 무심한 달은 온누리 굽어보고 있는데,  
달은  
기운 게 아니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물주도 모르게...

밤새  
휴식 중인 해가  
야금야금  
조물조물  
먹고 있는 중이었다. 🐞

### 〈표지 소개〉



## 선물 '훈민정음, 꽃으로 피어나다'

'한글'은 선물이다. 58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몸소 '어제(御製)'를 지으셨다. 그리고 108자로 풀어서 『훈민정음언해본』에 그 지극한 마음을 다하셨다.

그래서 선물인 것이다. 한글은 천지만물을 모두 묘사할 수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받아 적거나 표현할 수 있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유,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인들의 숨소리, 삶의 소리 그 자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 그래서 한글은 한국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기운생동의 힘, 삶의 그 근원인 것이다.

21세기 지금에 이르러 그 무궁한 우리의 숨, 삶의 소리인 한글이 전 세계로 무한한 생명력으로 활짝 꽃피우고 있다.

-만든이: 김정민(작가).

## 우리말로 환경 지키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날씨 좋은 어느 날,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한 펼침막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랑삼아 쓰는 화려한 외국어도, 어려운 한자말도 없이 오직 우리말과 한글로만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함께 해주세요!”

짧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쉽게 읽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가 섞인 펼침막이나 간판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외국어나 외국 문자를 써서 시각적인 맛을 더하기 위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주의 어느 길가에서 만난 우리말 펼침막은 더없이 따뜻하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말로 쓰인 따뜻한 펼침막과 간판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엮은이〉

## 제12기 우리말·우리글의 힘, 시민 강좌

올해 창립 117돌을 맞는 한글학회는 제12기 “우리말·우리글의 힘, 시민 강좌”를 엽니다. 이 시민 강좌는 우리말, 우리글 그리고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께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이 강좌는 재일 한국어 교육자인 김예곤 선생님의 지원으로 엽니다.

•때: 2025년 10월 22일(수)~11월 26일(수), 오후 3시~4시 30분

•곳: 한글학회 강당(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 ■ 강의 일정

날짜	강의 내용	강사
10월 22일	제1강: 한글학회와 말글운동 한글과 겨례를 살린 주시경 스승과 그 제자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10월 29일	제2강: 바른 말글살이 생활 속 잘못 쓰기 쉬운 말	김형배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
11월 5일	제3강: 방언의 한글 표기 한글 표기의 확대—제주 방언의 표기 방법	고동호 (전북대 명예교수, 한글학회 이사)
11월 12일	제4강: 방송말 톺아보기 방송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톺아보기	강재형 (☞MBC플레이비 대표이사, 전 문화방송 아나운서국장)
11월 19일	제5강: 신문 기사 톺아보기 쉬운 신문 기사를 통해 보는 쉬운 말, 좋은 문장	이경우 (미디어언어연구소장, 전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
11월 26일	제6강(특강): 훈민정음 이야기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수료식(4시 30분)		

### ■ 신청 안내

1. 수강 대상: 누구나
2. 수강 인원: 30명 안팎
3. 수강료: 무료(강의 자료집 포함)
4. 수강 신청: 이름, 출생년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보냄.  
☞ 보내는 방법: hangeul@hangeul.or.kr / 02-738-2238(전송)
5. 수강 신청 기한: 2025년 10월 17일(금) (신청자가 10명 미만이면 강좌를 취소할 수 있음.)
6. 수료증 발급: 5회 이상 출석하신 분께만 ‘마친 보람’을 드립니다.

## 한글학회 창립 117돌 기념 잔치



▲ 한글학회 창립 117돌 기념 잔치에 함께한 이들.

우리 학회는 지난 8월 29일(금) 오후 5시부터 한글회 관 강당에서 창립 117돌을 맞아 기념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관규 부회장의 사회로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의 기념 말씀을 비롯하여 축하 말씀(이계진 전 아나운서, 외솔회 이창덕 회장), 축하 시 낭송(오동춘 명예이사), 감사장 드림(서울중앙교회 김진영 담임목사), 직원 근속 표창(임찬우 관리과장), 기념 강연(세종국어문화원 김슬옹 원장)의 차례로 펼쳐다.

### 감사장 드림



▲ 감사장을 받는 서울중앙교회 김진영 담임목사의 모습.

이날 기념 잔치에서 우리 학회에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김진영(서울중앙교회 담임목사)님께 고마운 뜻을 담아 감사장을 드렸다. 김진영님은 지난 5월 21일(수)에 간직하고 있던 『조선말 큰사전』 제2권과 제3권 초판본을 우리 학회에 기증하였다.

이번에 김진영님이 기증한 자료 가운데 『조선말 큰사전』 제3권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앞서 발간한 것이어서 그 초판본이 매우 귀중한 책인데 이번 기증으로 우리 학회가 『조선말 큰사전』 1질(제1권~제6권)을 초판본으로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 직원 근속 표창



▲ 근속 표창 기념 사진(가운데: 임찬우 관리과장).

우리 학회에서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임찬우 관리과장: 2015년 1월)에게 근속 표창과 부상을 드렸다.

### 기념 강연



▲ 세종국어문화원 김슬옹 원장의 기념 강연 모습.

이날 117돌 창립 기념식을 마치고, 오후 5시 40분부터 우리 학회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원장) 이사가 “낯말 하나하나에 담은 거래의 열, 한글학회 사건의 발자취”를 주제로 기념 강연을 하였다.

### 『한글』제86권 제3호 펴냄



『한글』제86권(통권 제349호)가 나왔다. 2025년 9월 30일 펴냄. 새 국판, 538쪽, 값 15,000원.

이번 치에 실린 국어학·국어교육 논문 12편의 글쓴이들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유현경: 광복 이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구본관: 광복 이후 80년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연구사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한데로: 사전으로 살펴본 형태론의 몇 주제들—『조선어사전』, 『큰사전』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한국어 다중 분열문의 통사론 △목정수: '화형 통사론'과 '통사적 주제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어 통사론의 본령을 찾아서— △김건희: 북한 문법론 연구의 성과와 과제 △임동훈: '-게 하-' 구문의 통사적 지위 △곽녕: 의문문에 나타난 '-겠지'와 '-은/-을 것 같지'의 의미와 쓰임 △남택승: 의미 중심의 새말 형성 원리 연구-2017년 신어를 바탕으로 △김정태: 1930, 40년대 『한글』에 실려 있는 황해도 지명 연구 △이영정·이정현: 5개 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에'에 대한 오류 양상 연구 △고효정: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의 적용 연구.

## 2025년 제9차 『한글 새소식』

### 편집위원회 옹

우리 학회는 9월 9일(화)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2025년 제9차 『한글 새소식』 편집위원회를 열어 “『한글 새소식』 제639호(2025. 11.)의 기획과 제638호 편집”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동근 위원장, 고동호·김슬옹·남길임·이동은 위원과 성기지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 ‘우리말 알아맞히기’ 행사

### 나의꿈국제재단



▲ 한글학회를 방문한 나의꿈국제재단 임직원들의 모습.

나의꿈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은 전 세계 한인 청소년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모국어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학회와 협력하여 전 세계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말 알아맞히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학회 정기간행물 『한글 새소식』에 실

린 「우리말 알아맞히기」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기지 전 연구편찬실장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을 흥미로운 퀴즈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참가자들이 재미와 함께 우리말 실력을 높이고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에 큰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의꿈국제재단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우리말 꿈 발표를 통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전 세계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지부를 두고 있다.

## 허버트 박사 76주기 추모대회

### 허버트박사기념사업회



▲ 허버트 박사 76주기 추모대회 모습.

허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는 8월 27일(수) 오전 11시,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내 백주년기념교회 선교기념관에서 허버트 박사 76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은 김선아 홍보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동진 회장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추모사 대독),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모사를 베풀었다. 이날 추모대회에서 허버트 박사 후손 브래들리(Bradley)·브랜든(Brandon)·매튜 루스(Matthew Roos)가 참석하였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 인



▲ 왼쪽부터 허버트 후손 브랜든(Brandon)·브래들리(Bradley), 허버트박사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 한글학회 김주원 회장, 허버트 후손 매튜 루스(Matthew Roos).

사 및 시민들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는 김주원 회장과 김 한빛나리 사무국장·김나영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험버트 박사 후손들이 기증한 험버트 박사의 회중시계,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비교 연구』 원본, 험버트 박사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사시던 집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 유품들은 험버트 박사 후손 브루스(Burce)가 험버트 76주기를 맞아 험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것이다.

### 제3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회원전

####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사랑본부(회장: 류명식)는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세종이야기 전시장)에서 8월 26일(화)부터 9월 21일(일)까지 <제3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회원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한글사랑운동본부 소속 51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한글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 작가 등의 주요 인사들이다.

또한, 한글을 바탕으로 문화상품을 비롯하여 서예·캘리그래피·한국화·서양화·서각·조각·공예·도예·디자인·의상·무용·사진·문예 등 폭넓은 작품으로 더욱 친근한 한글문화의 모습을 선보였다.



▲ 제3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회원전의 모습.

## 579돌 한글날 경축 잔치

- 때: 2025년 10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곳: 한글학회 강당

- 2025년 주시경 학술상
  - 김동소(대구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 국어운동 공로 표창
  - 장점환(일본 간사이지회 대표이사)
  - 정경우(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 이정민(문화방송 아나운서국 부장)

※ 아울러, 한글날 기념 세종대왕께 꽃 바치기 모임이 10월 9일(목) 오전 9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한글 새소식』을 어떻게 받아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결같이 『한글 새소식』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한글 새소식』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종이책 대신 전자책(누리집 피디에프 파일 이용)으로 구독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글학회는 『한글 새소식』 구독 방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종이책 발행을 줄이고 전자책 구독을 늘리고자 합니다.

『한글 새소식』 구독 방법에 대한 아래 사항을 편한 방법(누리편지, 전화, 전송, 우편)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전자책(누리편지로 연결 주소 붙임) 구독으로 간주하여 발송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구독 방법	종이책 ( )		전자책 ( )
우편 주소			
누리편지 주소			



주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738-2236~7, 전송: 02-738-2238    누리편지: saesosik@hangeul.or.kr

### ♣ ‘날쌔’와 ‘날고기’, 그리고 ‘날짐승’

‘한글날’의 ‘날’은 한자 요소 ‘일(日)’, 영어 ‘day’에 해당하는 우리 토박이 낱말이니, 두루 알다시피 ‘설날’, ‘그믐날’, ‘부처님 오신날’ 등으로 쓰이지요. 또 ‘날’은 다른 낱말 앞에 붙어 ‘날쌔’, ‘날품’, ‘날같이’와 같은 낱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때에는 ‘하루(1일)’를 뜻합니다. ‘날쌔’는 하루의 품쌔, ‘날같이’는 소를 부려서 하루에 갈(짜서 뒤집을) 수 있는 발의 넓이를 가리킵니다.

형태는 같지만, 다른 낱말의 앞에만 붙는 ‘날’(접두사)이 있으니, 주로 ‘익거나 가공되지 않은’ 또는 ‘마르지 않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날간장, 날감자, 날고구마, 날고기, 날김치, 날달걀, 날생선, 날콩, 날음식”, 그리고 “날나무, 날밤, 날벼, 날보리, 날장작” 등과 같습니다. ‘날간장’은 소금물에 우려낸 후에 아직 끓이지 않은 간장을, ‘날음식’은 익지 않은 음식을, ‘날나무’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장작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의 ‘날’은 “생감자, 생고구마, 생고기, 생김치, 생달걀, 생콩, 생나무, 생밤”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 요소 ‘생(生)’으로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밖에 “날강도, 날진달, 날도둑”의 ‘날’도 이와 같은 부류인데,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하지만 ‘날개’, ‘날다람쥐’, ‘날짐승’, ‘날치’(물고기의 한 종류)의 ‘날’은 위의 것들과는 그 뿌리가 전혀 다르니, 이들의 ‘날’은 움직씨(동사)의 ‘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 아래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아주 다른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 ① 땀감으로 날나무를 쓰니 저녁이면 온 마을이 연기에 휩싸였다.
- ②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즐겨 날고구마를 깎아 먹더라.
- ③ 막걸리 한 사발에다 날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
- ④ 그때 그는 하루하루 폼쌔를 받는 날품팔이었다.
- ⑤ 장마철에는 날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지요?

※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10월 15일까지 누리편지(saesosik@hangeul.co.kr)로 성명, 전화, 사는 곳(도-시-군, 시-구)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정답을 맞힌 분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세 분을 뽑아 모바일 문화상품권(10,000원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한글학회 마당을 이용해서도 됩니다.

#### - 9월치 문제의 정답, 그리고 상품권 받으신 분

『한글 새소식』 제637호와 페이스북 한글학회 마당에서 9월 2일~15일 동안 공모한 ‘우리말 알아맞히기’ 정답은 “③ 주변에서 뭐라 하던 애초의 계획대로 밀고 나갈 태세였다.”입니다. 정답을 보내 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아래 세 분을 뽑아 모바일 문화상품권(1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형(인천광역시 연수구), 김재원(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지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도와주신 이들

“고맙습니다”

※ 한글학회에 성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2025. 8. 26.-9. 22.).  
 권오웅 20,000원 / 김경숙 10,000원 / 성다힘 20,000원  
 성세힘 20,000원 / 유영곤 20,000원 / 이은아 30,000원  
 조재수 100,000원 / 황혜영 10,000원

※ 『한글 새소식』 후원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2025. 8. 26.-9. 22.).  
 김경숙 10,000원 / 박은령 10,000원 / 신정현 10,000원  
 (후원 계좌: 우리 109-05-000415 한글학회)

(성금 계좌: 국민 009-01-1340-166 한글학회)